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희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중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 양재웅

그리스도의 사랑 듬뿍, 향기 가득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20)

아침과 저녁으로 부는 선선한 바람으로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의 손길의 오묘함으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롬 11:36).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십자가의 복음에만 심령을 열어드십시오. 모든 예배와 집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죽음”을 주제로 새롭게 시작된 월요새벽기도회는 마가복음 강해에 이어 풍성한 복음의 잔치, 그 자체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복음과 섬김의 잔

치는 계속됩니다. 충헌기도원에 가면 십자가 그늘 아래서의 영적 심편 아니라 가을의 정취도 느낄 수 있습니다. 추석 준비가 한창인 충헌동산은 천국의 소망으로 넘칩니다.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경상남도 함양에 개발 중인 충헌농원은 섬김의 손길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으며, 충헌복지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참 향기를 습니다(고후 2:15).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세례를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로마서 6:1~14)

로마서 6장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살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롬 6:1~2). 로마서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세례를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과 의를 섬기기 위하여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다(롬 6:1~2). 로마서 6장은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아 살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롬 6:1~2). 로마서 6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세례를 통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과 의를 섬기기 위하여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다(롬 6:1~2).

되었음을 세례를 통해서 설명한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과 죽음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섰다(롬 5:21, 6:3). 전에는 아담을 머리로 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전 12:13).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세례를 통하여 세워진 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생명의 새 관계 안에 있게 된 것이다(롬 6:4).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상징이다. 그러나 바울은 상징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례를 통하여 일어남을 지적한다(롬 6:5).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으며 아들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요 15:5; 골 1:13).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에게서는 죽어야 될 다른 몸이 없다.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속하여 있던 죄의 몸, 즉 옛 사람이다.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롬 6:6). 옛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과 또 죄의 몸이 멸하는 것은 세례의 부정적인 한 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활은 본받아 그에게 연합하는 긍정적인 면도 보여 준다. 세례를 통하여 옛 사람의 자리는 새 사람에 의하여 취하여졌다(고후 5:17).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 속에서 새 생명으로 산다. 생명의 나라, 부활의 나라의 본질과 같은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2000년 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

났다. ‘시간’이 결코 ‘아담의 죄’를 없앨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한 ‘죄’도 시간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한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죄와 싸워 대항하라 고 권고하였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역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롬 6:7~10). 죄를 권세로 볼 때, 그것이 인간의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죄가 인간을 다스린다(요 8:34,36). 그러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는 자들에게 죄는 더 이상 그 권세를 부리거나 다스릴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여 주셨을 때에 죄의 종노릇하던 그 위치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롬 6:18,22).

그리스도인들은 죄와의 전쟁에서 최전선에 서 있다(롬 6:12~13). 따라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로써 죄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갈 2:20).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골 3:3).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해서 현실에서 눈을 돌려 버릴 수는 없다. 우리의 현실은 곧 이 세상 안에,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있는 전쟁터이다. 이전에 우리는 죄의 군사로써 불의의 병기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군사로써 의의 병기이다. 매일 매일의 평범한 삶이 곧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장소이다.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에 다시 자리를 잡게 되면 다시금 또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결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롬 6:14; 고전 15:56).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옛 세상으로부터, 모든 파멸의 권능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한 삶이다. 항상 죄와 싸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율법은 인간을 죄에 잡아두고,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다. 아멘.

GOD'S WORD

⁽¹⁰³⁾How sweet are Your words to my taste! Yes,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¹⁰⁴⁾From Your precepts I get understanding; Therefore I hate every false way.

⁽¹⁰⁵⁾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Psalms 119:103-105)

The Word of God contains everything a person needs to know! The writer of today's psalm beautifully expresses this thought through his powerful praise of God's Word. Here is an Old Testament man who found the key to life, and took great pleasure in learning, teaching, and practicing God's Word. He loved praying to God and reading God's Word. Paul, a New Testament man, also found the key to life. He found God's Word profitable in all different situations. He confessed,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adequate,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2Tim. 3:16-17). Like these two men, how can you apply their confidence in God's word to your daily life?

When you're afraid to speak, read your Bible. Before Moses met God, he experienced a huge failure in his communication abilities, which forced him to give up his royal Egyptian lifestyle and take on a poor shepherding position. God came to Moses and asked him to lead over two million stiff-necked Israelites, even after he failed to handle just one. Moses said to God, "Please, Lord, I have never been eloquent, neither recently nor in time past, nor since You have spoken to Your servant; for I am slow of speech and slow of tongue." The LORD said to him, "Who has made man's mouth? Or who makes him mute or deaf, or seeing or blind? Is it not I, the LORD? Now then go, and I, even I, will be with your mouth, and teach you what you are to say" (Ex. 4:10-12). Moses didn't know how to talk to people. He felt incapable, just like us. Jesus, before His ascension, asked all believers to go and spread the good news. Christians are called to be the Lord's witnesses. Haven't you ever been frightened to talk to someone about Jesus? Jeremiah testifies, "Then the LORD stret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my mouth, and the LORD said to me, 'Behold, I have put My words in your mouth'" (Jer. 1:9). Do you believe it? Since God made your mouth, He can surely put His words in it, but you have to do your part. You have to read the Bible!

When you're feeling weak, read your Bible. Isaiah 40:28-31 say "Do you not know? Have you not heard? The Everlasting God, the LOR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Does not become weary or tired His understanding is inscrutable. He gives strength to the weary, And to him who lacks might He increases power. Though youths grow weary and tired, And vigorous young men stumble badly, Yet those who wait for the LORD Will gain new strength; They will mount up with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et tired, They will walk and not become weary." How great is that? Often life's burdens drain away our strength, but our problems never take God by surprise. God is our strength in troubled times. Psalms 46:1 says,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 God will give you the capabilities you need to perform the work at hand. He will renew your strength. He will give you power when you grow weary and tired. Philippians 4:13 say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Do you really believe it? Please, read your Bible, and let God strengthen you.

When fear tries to grip you, read your Bible. Isaiah 41:10-13 say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anxiously look about you,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surely I will help you, Surely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Behold, all those who are angered at you will be shamed and dishonored; Those who contend with you will be as nothing and will perish. 'You will seek those who quarrel with you, but will not find them, Those who war with you will be as nothing and non-existent. 'For I am the LORD your God, who upholds your right hand, Who says to you, 'Do not fear, I will help you.'" The whole Bible continually mentions that God is with you wherever you go, and that you never need to be fearful, but rather should always be strong and courageous! When fear strikes, turn to God. Fear and faith are opposites, but faith always overcomes fear. The Bible is a source of faith. Please consider how often it speaks "fear not" and "trust in God." God is great! He loves you and will always protect you. Next time fear strikes, open your Bible and read the Word of God with faith.

When the tempter is near, read your Bible. 1Corinthians 10:13 says, "No temptation has overtaken you but such as is common to man; and God is faithful, who will not allow you to be tempted beyond what you are able, but with the temptation will provide the way of escape also, so that you will be able to endure it." God provides the way out. He will give you the power to be able to bear the testing. Temptations are limited, but God is unlimited. Jesus is our prime example. When Satan tempted Him in the wilderness, Jesus used God's Word. Three times the devil tried to trick Him, and three times Jesus responded with God's Word. Jesus overcame the tempter by quoting Scripture. You can do the same. God will meet you where you are, and you can find out where you are by reading the Bible. The Holy Spirit will open your heart and mind to hear and understand God's Word. James 1:23-25 say "For if anyone is a hearer of the word and not a doer, he is like a man who looks at his natural face in a mirror; for once he has looked at himself and gone away, he has immediately forgotten what kind of person he was. But one who looks intently at the perfect law, the law of liberty, and abides by it, not having become a forgetful hearer but an effectual doer, this man will be blessed in what he does." The Word of God is the means of Christian growth, a mirror that reflects your defects, the ethical guide for Christian living, and the standard for judgment. Jesus said, "If you continue in My word, then you are truly disciples of Mine;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Jn. 8:31-32). He also said, "He who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said, 'From his innermost being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Jn. 7:38). Read your Bible, so that when the tempter strikes God's Word strikes back.

My dear friend, please grasp the utter significance, the ultimate importance of reading the Bible. There's nothing more important for you to do than to read your Bible. It is never a waste of time. Too many of today's Christians put other things before their Bible time. Please read your Bible first. You will never go wrong and you will never regret it. When you read your Bible, you never lose anything, but gain everything. God's Word will give you speaking power, refresh your insides, eliminate doubts and fears, and will easily defeat whatever the devil has going on around you. Spend time in God's Word every day. Make it a priority now. Let God's Word fill you with unspeakable and unimaginable love, joy and peace. Amen. 

다들 주일 설교

하나님의 말씀

⁽¹⁰³⁾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¹⁰⁴⁾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¹⁰⁵⁾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3~105)



김성관 목사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는 찬양으로 아름답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실천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았던 구약 시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의 사람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어떻게 우리는 이 두 사람처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말하기 두려울 때 성경을 읽자

말하기가 두려울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세는 의사 소통에 있어서 큰 실책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애굽 왕실에서의 생활을 포기해야 했고, 가난한 목자의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2백만 명이 넘는 목이 곪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그는 단 한 명조차도 설득하지 못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내 뱀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출 4:10~12).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자신의 무능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신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렘 1:9). 이것을 믿습니까?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느낄 때 성경을 읽자

약하다고 느낄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사야 40:28~31은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께 여호와와, 끝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니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늙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달을 박멸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때때로 인생의 짐들이 우리의 힘을 완전히 바닥나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문제로 하나님께는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시편 46:1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즉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할 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빌립서 4:13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정말로 이 말씀을 믿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공포를 느낄 때 말씀을 읽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사야 41:10~13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를 입을 줄을 달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몰아칠 때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두려움과 믿음은 서로 상반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항상 두려움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믿을의 원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이 성경 안에서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또 다시 두려움이 밀려오면 성경을 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을 읽자

시험이 올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0:13은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피할 길을 보여주시니, 주님은 여러분에게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험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예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귀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세 번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함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말씀을 읽음으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23~25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그 거울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류름계 하는 온전한 율법을 떠나고 되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원동력이자 잘못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도자이고 판단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1~32).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 7:38).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시험이 닥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믿습시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요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읽는 시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장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결코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가거나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아무 것도 잃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언변의 능력을 주며, 여러분의 속사정을 새롭게 하고, 의식과 두려움을 없애며, 마귀가 여러분 주위에 벌이는 어떠한 일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 기쁨 그리고 평화로 여러분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수요1부예배 메시지 / 메시아의 죽음

수요1부예배 메시지
(2009. 9. 16)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7:28-29)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의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마 5~7장)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을 기록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 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마 7:28-29). 사람들이 이전에 배우거나 전혀 듣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나섬에 대한 것을 기록하였다. 2장은 동방박사와 헤롯, 죽음의 위협을 피해 피신하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3장은 세례 요한과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4장은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뒤에 첫 메시지(마 4:17)를 전하시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였다.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이 말씀을 비그리스도인들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놀라운 말씀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말씀은 없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동시에 죄인이기 위해 회개 필요하며 매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나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도구로서의 예수가 아닌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로서 믿어야 한다(마 7:24).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신자들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분이시다(마 28:18-20).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며 빛이시다(요 1:4).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 1:14). 유대인

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요 8:58) 계셨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처음과 마지막이시다(계 1:17). 오직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요 3:16). 구원 얻을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느니라”(요 14:6).

●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요 1:29).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 이 놀라운 사실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다(마 4:6~8).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마 8:1~3, 9:1~3). 창조주시기에 자연을 섭리하기도 하신다(마 8:26).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밤을 보내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예수님은 반드시 영원한 처소가 있는 천국으로 믿음의 자녀들을 이끄실 것이다(요 14:4~6). 이를 위해서 승천하셨던 예수님은 이미 약속하신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살전 4:13~18). 그래서 하나님에 통치하시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것이다(계 20:4~7). 유한한 생명을 연장해보겠다고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를 모두 준비하신 뒤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마 1:1)에 속해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환경을 초월하자.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찬 86장). 아멘.

메시아의 죽음 1

서론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마시아(mashia,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Christ)로서 ‘구원자’를 의미한다. 서른 살쯤의 한 유대청년이 종교지도자들과 로마의 재판을 거쳐 십자가형을 당한 뒤 장사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말한다. 역사 속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지만 곧 잊혀졌다. 그러나 아주 연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한 유대청년의 죽음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문화와 세상의 가치 속에서 무미하게 보일 수 있는 죽음이었지만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메시아의 죽음은 진실로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고귀하다. 그러나 ‘메시아의 죽음’이라는 말 자체를 놓고 볼 때 역설적이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신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그 능력이 주님이신 메시아가 죽었다는 말은 분명 모순이다. 그런데 신학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지성인은 메시아의 죽음을 설명하거나 변증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우리는 절대로 메시아의 죽음을 이해하거나 변증할 수 없다.

그렇다면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믿음”이다! 메시아의 죽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저 믿자. 그러면 복잡한 문제는 해결되고 초점은 분명해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실야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 5:15). 메시아의 죽음은 우리, 더 구체적으로 나를 위한 죽음이다. 메시아의 죽음과 나는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죽 누운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메시아가 하나님임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닌 메시아(그리스도)

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롬 3:22). 메시아의 죽음으로 새 피조물 된 사람의 특징은 ‘예수 믿는 자’(롬 3:26)이다.

메시아는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고난을 통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리라 하리라”(마 16:24~25).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와 같은 메시아의 죽음은 우리에 따라야 할 신앙의 표본이다.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의 초점을 고정해야 한다(막 15:38~39). 기독교의 중심과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다(롬 10:8~12). 구원의 문제는 오직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롬 10:13, 11:13, 20, 25, 34~36).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메시아의 죽음에 관심이 없다. 대신 세상에서의 성공과 축복의 삶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영적 부패가 가장 심각하였던 북이스라엘왕국의 아합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패했음을 알고 있는가? 지금 당장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러므로 형제들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1~2). 놀라운 비밀은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있다. 바로 메시아(그리스도)의 죽음이다. “나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메시아의 죽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아멘.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선교

이번 선교회는 교구팀으로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어른들과 가게 되어 힘든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는 이런 것이 '선교'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차에서 어디든 이동할 때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정말 쉬지 않고 했습니다. 저는 가끔 졸기도 했지만 집사람, 권사님들께서는 피곤하셔서 텐데도 계속해서 찬양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주님은 저희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신을 믿는 가족이 주님을 믿었다고 영접기도까지 하게 해 주시고,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냥 거닐 때마다 길가에 지나다니는 차를 세워 주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저희를 보내셔서 저희는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서 많은 영혼을 만나고 오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비록 고난도 있었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저희는 담대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번 선교를 통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주님이 살아 계심을 몸소 체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번 선교를 끝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원나현(중학생, 1교구)

기도하며 뿌린 복음의 씨앗

하루는 숙소에서 약 60킬로미터 떨어진 농촌 마을을 전도하는데 신발은 신지 않고 뚝뚝(상의)도 못 입고, 한쪽 눈이 병균에 감염된 채 오는 아이를 포함하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수십 명이 가까이 와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도지 수량이 부족하여 육성과 율동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어서 저희 일행은 더욱 간절히 마음으로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녁 평가회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뿌린 복음의 씨앗이 주님의 은혜로 언젠가 열매 맺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짧은 선교 기간이라 한 집이라도 더 찾아 다닐 수 있도록 회개하며 간구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8)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케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과 지원으로 저를 이방 백성들이 우상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회개하며 생명의 주,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육신의 안락을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민선(안수집사, 2교구)

뜨거운 기도의 힘

선교지는 공산권으로 포고 활동이 금지된 곳이며, 현재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들었다. 내심 열려하는 마음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감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고, 나 또한 공안에게 붙들려 추방당하는 일만은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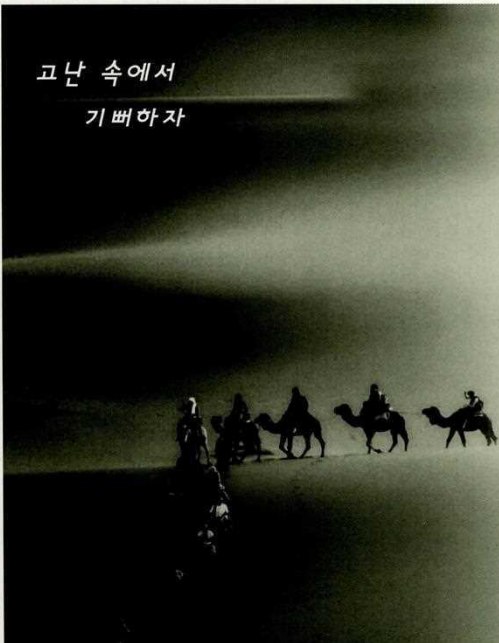
사역지에 도착하여 긴장감 속에 첫 사역을 나섰다. 외부 사람들에게 배타적이라는 그곳 사람들은 우리의 열려와는 달리 거부 반응 없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그러나 개중에는 손을 저으며 자기가 믿는 우상 신을 믿는다고도 했지만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몇 번의 위험에 처하기도 했으나 주님은 순전히 피하게 해 주셨다. 몸의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갈 것을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복음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은 소년들 위해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많이 울며 기도했다.

선교지는 우상으로 뒤덮인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다. 어딜 가나 우상 단지가 차려져 있고, 생명이 없는 저물 모습에 주님은 너무 애통해 하며 많은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다. "미련하고 무지한 딸에게 선교지를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주님! 그들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내 마음에 품으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로 하여금 이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주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는 그 때까지, 사역을 떠나기 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오!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장혜남(권사, 22교구)

고난 속에서

기 뻗자



선교지에서 예수님은 예비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였고, 우리의 작은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각각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어린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믿겠다는 그들의 고백과 영접기도하는 아이들을 볼 때 저들을 통해 선교지를 복음의 땅으로 변화시킬 모습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함께 찬양을 할 때 그들의 아름다운 찬양소리와 율동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저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저도 기뻐했습니다. '낮에는 복음전파 밤에는 열적무장으로' 선교구호처럼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로 무장하게 하셨습니다. 게으름이 찾아올 때쯤엔 팀장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회개하며 다시 한 번 기도로 무장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강하셨습니다.

산 넘고 강 건너 가게 하시고 율동불통한 길들을 지나 여러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인도로 많은 가정을 만나게 하였고, 또 교회 다니는 가정도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사역을 마칠 때쯤, 저희 조의 한 친구가 갑자기 뛰어나가 짝짝 놀라 주위를 살피는데 팀장님이 저희에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팀장님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 또 의료인 친구가 차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누가 다쳤나?' 하는 생각을 하고 뛰어가 보니 한 팀원이 개에 물린 상태였습니다. 한국 개와 달리 선교지의 개는 커서 상처가 생각보다 깊었는데 선교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처음이라 짝짝 놀라 기도하며 '예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신 거죠?'라고 물게 하셨습니다. 워크북 앞에 써 있는 선교 주제를 다시 보게 하였고 '고난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자'를 읽으며 '아! 예수님 고난을 기뻐하라 하셨군요. 근데 제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속상해요.' 계속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교사님과 사도행전의 순교한 많은 분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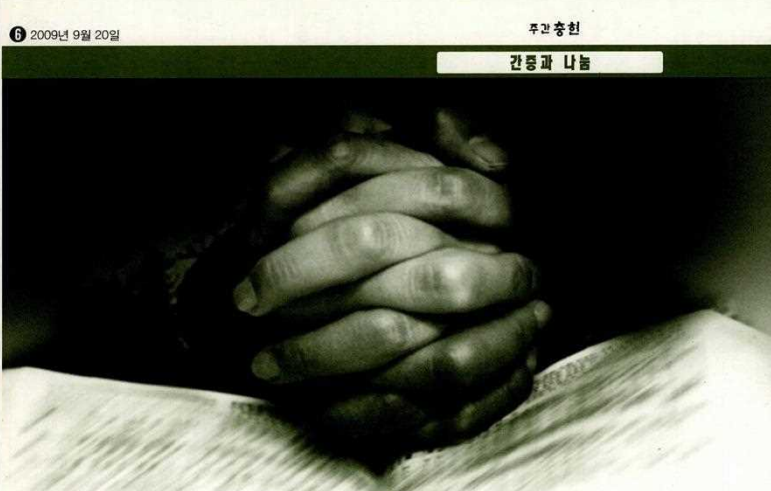
현을기(대학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21일(월) ~ 9월 29일(화)	10교구 4팀	정문호
9월 22일(화) ~ 9월 30일(수)	5교구 3팀	김국원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9월 16일(수) ~ 9월 25일(금)	8교구 3팀	오형석
9월 16일(수) ~ 9월 24일(목)	23교구 3팀	정중헌



우리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월요새벽기도회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목사님의 설교에 많은 은혜를 받아 회개와 감사가 넘쳤던 시간이었다. 그 귀한 말씀 중 나는 마가복음 15장 21~3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는 말씀이 아직도 내 마음에 생생하다.

하나님의 뜻에 반함없이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함이 나의 눈시울을 적셨다. 인류 구원을 위해 유일한 대속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오직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은혜가 넘쳤다. 한 마리의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듯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문 밖 해골을 의미하는 골고다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고,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셨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가 아닌,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악행을 범한 죄수였다. '왜 그들은 그때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몰랐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에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이런 고난과 모진 고통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더라면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텐데...'라는 고백이 나왔다. 예수님 곁에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다(막 15:27).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한 강도는 욕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 지난 3월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는 폐암 말기 1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셨다. 그때도 그랬지만 '살아계셨을 때 좀더 일찍 예수님을 전하질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살아계실 때 좀더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죄책감에 회개기도를 하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나의 기도도 고난의 길과 좁은 길로만 가야 한다. 이것이 지금 나의기도 제목이다. 이 세상에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정 식구들, 이웃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송은하(집사, 청년2부)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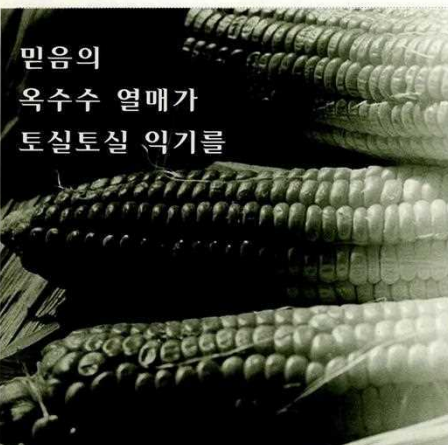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 하시리로다'(시 55:22). 운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께 기꺼이 맡기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약한 이 죄인은 마치 주님이 나의 보물을 빼앗아 가시는 줄만 알고 내 보물 보따리인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매주 금요찬양집회에 위임목사님의 애타는 호소어린 말씀에도 끄덕하지 않고 더 강하게 부둥켜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날도 살아있는 내 육신을 이 더러운 죄덩어리 육신에, 이 영혼에,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자신을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 얼마나 추하고 구역질 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봉사하며 기쁨으로 믿음생활을 해 왔다고 자부했던 제가 얼마나 아이없고 주님 없이 나 혼자 흥분에 차 있었는지 모릅니다. 생각할수록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육신의 질병의 짐, 가족의 짐, 감당하지 못한 인생의 짐을 내가 홀로 지고 가려던 미련한 죄인을 오늘 주님께서는 찾아 주시고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저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눈동자같이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도우심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12년간 열무병을 앓던 여인의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의 옷가지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김경희(권사, 24교구)

믿음의 옥수수 열매가 토실토실 익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1~2). 교구 자원봉사부 팀장으로 맡은 직분 감당하게 하시어 충현기 도한 내에 있는 교구 텃밭 가꾸기를 주님의 명령으로 붙잡고 지금까지 이 땅을 기경하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200평 남짓 되는 땅을 경작하는 것은 발농사를 한 번도 지어 보지 않은 사람으로서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교구 가족들은 한 집에 모여 씨감자를 조개는 일부러 밭고랑을 일구고 씨를 땅에 박고 흙을 덮고 감초를 뽑고 가라지는 버리고 알곡을 파종할 때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씨를 뿌렸다. 파종 후 우리는 노심초사 감자씨 한 조각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의심하였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음 없음을 확인하게 하는데 오랜 시간을 주시지 않았다. 이번 하지에 감자를 70박스나 열매 맺게 하시고 수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12).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신 것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창 1:29)를 주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경작지에 감자를 수확하고 다시 옥수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시 한 번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씨 감자를 뿌릴 때도 그랬지만 이제 옥수수를 파종하며 우리 기도한다. "주님,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안에 있어 갈 믿음의 옥수수 열매가 토실토실 익기만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주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최규태(집사, 2교구)



청지기칼럼

나를 부르신 주님

나의 존재감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느낀다. 세상 속에서 한없이 작아지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벅차올라 기쁘고 평안해서 작아진 내가 커다랗게 느껴진다. 보여줄 것도 내놓을 것도, 돌려줄 것도, 존재감도 느껴지지 않는 나는 주님의 눈에 그저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지는 죄인이었다. 주님은 나를 그저 사랑하셨다. 어린 시절 시간 가는 줄도 모르며 놀 때에 자녀를 찾아 집으로 데려가는 어머니와 같이 나를 찾아 주님의 집으로 이끄셨다. 자연스럽게 평안한 마음으로 얼마 후에 이끌어 집으로 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부르심이였다. 물이 스며들 듯, 주님과 나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수많은 시간을 속에서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다. 내 인생 어느 한 순간도 예수님은 나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 내 나이 서른을 앞두고 결혼을 생각하며 작정되도록 드리기 위해 충헌교회에서 새벽예배를 시작했다. 생전 교회 근처라곤 가지 않으면서 어머니는 딸의 새벽 결음이 걱정되어 같이 새벽예배에 나가셨다. 이후 어머니는 교회에 등록하여 세례교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나를 결혼시키셨다. 남편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의 영혼 구원보다는, 예수님을 핑계로 만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싫어요."라고 말하자 "믿으면 되잖아요."라는 대답에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주일예배만 드리던 남편은 2년 전부터 교회봉사를 하며 이제는 단기선교를 준비하고 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찬 436장). 작은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시작으로 나의 부모 형제들을 구원해 주셨다. 지금도 나는 기도한다. 아직도 주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은 시댁의 식구들, 이모들, 외삼촌, 삼촌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다. 이와 같이 주님은 당신의 시간에 나의 삶과 나의 가족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나의 삶은 참으로 단순했다. 아홉 살 때 부르심을 받은 이후 오십이 넘는 지금까지 교회와 집밖에 모르고 산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어디서든 예수님 이 야기만 하고 구원의 기쁨만을 말한다. 전화 통화를 해도, 처음 만나지는 사람과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친척들과도 결론은 예수님이였다. "날마다 한 걸음씩 주의 인도함을 따르고자 기도합니다. 영원히 나의 찬송이 되며 나의 영광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최민희
(집사, 9교구 간사)

도마 같은 나

어느 날 문득, 종소리가 들렸다. 그 종소리에 이끌려 나는 교회로 갔다. 기왕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한 해를 시작하는 날부터 하고 싶어 집 근처 교회와 신년예배에 참석하였다. 이후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구역을 배정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감동을 채우지 못 하여 늘 목이 말랐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차츰 흥미를 느꼈고 신앙생활도 자연 호기부 되었다.

지나던 어느 날 제부가 내린 한 장의 <주간찬헌>은 스러져가는 신앙의 불씨를 살려 주는 기복제가 되었다. 나는 <주간찬헌>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동인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가족부에 등록을 하여 지금 그 과정을 이수중이다. 그곳에서 나의 영적생활을 도와주시는 열성적인 선생님을 만났고 한주 한주 공부하는 동안 조금씩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기에 바빴으나 이제는 주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서툰 부담을 느끼며 살아 가고 있다. 또 새가족부에서 제공되는 말씀 교육을 받으며 이전에 무작정 믿을 때와는 달리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확신이 생겼다. 또한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상황에 반응하는 구체적 지침을 얻고 있다.

지난 청지기훈련 때 나는 많이 뒤흔들었다. 말씀 주제인 '기도'를 배우며 기도를 실천하리라 마음먹었고, 이후 시간을 정해 기도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미 주셨던 예배소서 6장 10절, 전신갑주의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덧입혀 주신 말씀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바를 실천에 옮기고 싶다. 나는 지금 그 열매를 위해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있다.

나는 도마 같은 사람이었다.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아야 믿었다. 예수님도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 본 후에 믿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못 보고 손으로 못 만져도 임마누엘 주님의 존재를 믿는다. 나도 모세처럼 "저는 허가 뻔했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한다. 그때마다 주님이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도 임마누엘로 화답하심을 믿는다.

나는 새가족부의 역할을 짐작하리엔 비유하고 싶다. 나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어린 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옮기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주님게로 가는 짐작다리 위에서 나는 행복하다.

박정희(성도, 새가족양육부)

십자가

당신의 십자가에 얼굴을 돌리고서는
밧없이 돌아선 적이 얼마나 많으리
마음에 품었던 감사와 사랑이 무너지고
그저 나 살겠다고 발바닥진 나약함에
치를 떨면서 어둠에서 달빛 떨며 지내왔습니다

작렬하는 빛 아래 더러운 것을 내어놓지 못해
차용함을 얻지 못하고
감추고 감추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추한 죄를
소중한 보물 다루듯 간직하고 품어내지 못하네오

빛이신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삶에 비취주시옵소서
당신의 밝은 길을 따라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황정연(정년1부)

♡ 새 가족 을 환영 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28	최은주	1	청년2부	김근아(1)
1329	박미종	1	청년2부	김근아(1)
1330	박득남	14	장년2부	황학규(15)
1331	박진욱	22	장년2부	최정일(16)
1332	박영파	9	장년1부	구정희(9)
1333	신윤희	3	청년1부	김영아(3)
1334	김현국	2	청년1부	
1335	류재민	22	소년부	김준희(22)
1336	김상준	22	소년부	김준희(22)
1337	서예린	16	소년부	전재숙(14)
1338	지용만	10	장년2부	이혜리(10)
1339	고운자	10	장년2부	이혜리(10)
1340	김찬술	15	고등부	조수빈(15)
1341	최정미	16	청년1부	엄정자(16)
1342	김동희	2	고등부	정옥선(3)
1343	유시은	1	대학부	
1344	임한나	3	청년1부	김영실(19)
1345	손말렉산더	25	외선부	
1346	김선영	22	청년1부	박홍란(22)
1347	한나라	13	대학부	강신자(13)
1348	이창식	25	에바다부	이원식(25)
1349	유순자	25	에바다부	이원식(25)
1350	김동현	23	청년1부	이양호(11)
1351	이은선	6	대학부	
1352	이은지	6	대학부	

* 출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